

신속한 재난정보로 재난 피해 최소화해야



이 연 위원
대전중재부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11월 11일 빠르게 데이로 언론이 난리법석을 떠는 가운데 TV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가슴 뭉클한 광경을 보았다. 바르샤바에서 열린 UN 기후협약총회에서 필리핀 대표인 예브 사노(Naderev Sano) 기후담당관의 눈물어린 호소였다. 한 국가의 대표가 세계의 대표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하는 눈물어린 광경에 모두가 기립하여 박수로 격려하는 장면은 숙연하기까지 했다.

지난주에 괴물 태풍 ‘하이옌(Haiyan)’이 강타한 필리핀은 국가적 재난으로 온 국민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필리핀은 연간 20여 차례 태풍이 불어 닥쳐 2002년 이래 182차례나 태풍에 의한 재난을 겪었다. 이에 사노 담당관은 이번 기후변화협약 총회 개막회에서 강대국들에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하이옌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준 레이테주의 주도 타클로반(Tacloban)은 거의 초토화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재난 발생 7일째가 되어도 식량이나 식수를 공급받지 못한 마을이 절반이 넘었고, 인명피해도 무려 50,000여명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급한 재난지역에는 72시간 이내에 구조가 이루어져야 인명피해의 최소화가 가능하다. 그런데 타클로반의 경우, 72시간이라는 구조 데드라인의 2배가 넘는 시간이 지난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까지 세계 각국으로부터의 구조의 물결이 붓물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국가적 재난에 대한 대비책으로 재난정보시스템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 국가적 재난에는 자연적인 재난이나 전쟁, 테러 등이 있다. 전쟁이나 테러의 경우는 일시적으로 국가 전체를 위기에 휩싸이게 할 수 있지만, 자연적인 재난의 경우는 부분적이고 국지적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형재난 발생 시에는 국가 전체든 국지적이든 간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천후적인 종합재난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최근까지 각종 자연재난은 부분적이고 국지적이지만, 기후 온난화 현상 등으로 이는 점점 대형화되어 지구촌 전체가 위기를 맞이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다. 2011년 태국의 수도 방콕의 대홍수 사건, 2011년 일본의 동일본 대진재(大震災), 지난주 필리핀을 강타한 태풍 하이옌(Haiyan) 등 대형 자연재난에 이어, 미국 중서부에서는 단 하루 동안 80여개나 되는 토네이도가 휘몰아쳐 미국 전역을 긴장시키곤 했다. 이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미국 중서부는 하루아침에 거의 초토화 되었다. 이번 토네이도의 경우는 그 규모가 최대풍속이 초속 74m 정도로 강력해 지상 위의 건물들은 물론 원전과 같은 건물도 중심기압에서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제 지구촌 어디에서나 이와 같은 대형재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재난정보 전달시스템을 준비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다. 신속한 재난정보는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재난 발생 이전이나 재난발생 시, 그리고 재난발생 이후에까지 신속한 재난정보 전달로 그 재난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정부나 관계 당국자들도 올해는 태풍이 없었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신문사나 지상파 방송국, 종편, 케이블 등과 연계해서 선진형 조기경보체제와 종합재난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태풍이나 폭우, 지진 등의 자연재난은 이제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